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매우 특별한 전문가이자 주체, 어린이자문단



▲제9기 어린이자문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와 함께 만들어 가는 박물관을 구현하고자 어린이박물관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어린이들을 선발하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에 1기 어린이자문단으로 50명의 어린이들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어린이자문단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의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활발한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자문단의 핵심적인 역할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자문단은 어린이박물관이 나아갈 방향, 체험전시 구성, 체험 교육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자문단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들은 어린이박물관의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17년 오픈한 신규 미디어-인터랙티브 상설 전시 '컬러풀 정글'에는 실제로 어린이자문단의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생각과 직접 그린 스케치가 적극 반영되었으며 18년 오픈한 신규 상설 전시 '바람의 나라'의 초기 기획부터 실제 전시물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까지 다양한 예술 작가 워크숍을 통해 어린이자문단의 재미있는 상상력이 반영되었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2019년에도 제10기 어린이자문단 30명을 선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문단 10주기를 맞아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쳐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소리를 전달해 줄 어린이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